지역 소식통

김제시, 농촌 일손 돕기 전개

김제시 인재양성과 조종현 과장을 비롯한 직원 15명은 22일 백산면 한 농가를 방문하여 상추수확, 포장, 잡초제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전개해 훈훈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활동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일손이 모자라 적기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진행됐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자신들의 일처럼 하나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직원들은 구슬땀을 흘렸다.

조종현 인재양성과장은"영농철 일손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마음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지역 농업인과 가까이 소통하는 김제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 두월천변 해바라기 모종 심어

김제시 검산동주민센터(동장 김윤수)는 22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규석) 위원 등 40여명과 함께 두월천변 4km에 대한 꽃길조성을 위해 해바라기 모종을 심었다.

이날 심은 해바라기 모종은 두월천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두월천변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였다

검산동주민센터에서는 2015년 9월 23일 제1회 해바라기 축제를 개최하여 두월천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주민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6월에는 매리골드도 함께 식재하여 전국최초 5년연속 대표축제인 지평선축제 직전 아름다운 두월천변을 보실 수 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농협시청출장소 리모델링

김제시청 민원실내에 소재한 NH농협은행 김제시청출장소(소장 김해일)는 최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금융편의를 제공하고자 사무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리모델링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건식 김제시장과 나병문 시의회 의장, 윤남기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영길 NH농협은행 김제시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새롭게 단장된 사무실을 둘러보고 떡 커팅식을 하는 등 사무실 리모델링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현대자동차, 미얀마 정부와 계약

29인승 중형버스 '카운티' 200대 공급 · 초도물량 50대 선적 개시

현대자동차㈜가 코트라, 포스코대우와 함께 미얀마 양곤 주정부와 29인승 중형버스 '카운티' 2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2일 광양항에서 초도물량 50대를 선적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은 대한민국과 미얀마가 사상 처음 체결한 G2G(Government to Government : 정부간) 계약으로, 정부의 경제외교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시너지 효과를 낸 좋은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올해 초 미얀마 양곤州 의회 건물에서 열린 사전 미팅에서 양곤 주지사, 양곤州 산업부장관, 교통청 청장과 현대자동차, 포스코대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운티' 상품 소개 및 서비스 지원 방안, 계약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고, 지난 4월 26일 정식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계약이 통학시간대 교통혼잡 개선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미얀마 양곤州의 개학 시즌인 6월에 맞춰 22일 광양항에서 초도물량 50대를 1차로 선적했고 6월에 나머지 150대도 선적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카운티'는 6월 말부터 양곤 내 공립학교에서 통학용 스쿨버스로 운행될 예정인데, 현대자동차는 현지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통학을 위해 경광등, 어린이용 안전발판, 커튼 및 시트커버를 추가 적용했고 3년/20만km 품질보증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정비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버스와 같은 상용차는 승용차와 달리 대당 판매가격이 높고 운행기간과 거리도 상대적으로 길어 품질과 내구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량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미얀마 정부가 직접 '카운티'를 선택한 것은 현대자동차의 품질과 내구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미얀마의 미래 새싹인 학생들이 현대자동차 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하면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현대자동차 버스의 우수한 품질과 상품성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 G2G 계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중복기자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발대식 개최

완주군, 일자리 · 창업 등 토론 · 정책발굴 펼치기로

완주군은 청년이 직접 청년정책을 발굴 · 제안하고 참여하는 청년정책 네트워크단 발대식을 지난 19일 완주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은 일자리 · 창업, 문화 · 교육, 주거 · 복지, 농업농촌, 참여 · 소통 등 5개분과 43명으로 구성돼 매월 토론과 정책발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중 5명은 완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위원으로도 활동 할 계획이다.

군은 도내 최초로 청년참여 예산제를 추진, 청년정책 네트워크단에서 제안 · 발굴한 정책을 오는 7월 공모를 통해 선정, 2018년 청년정책으로 직접 실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청년정책네트워크단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 완주군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직장인, 창업가, 농업인, 사회적기업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1달간 공개 모집과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청년 당사자가 발굴 · 제안한 정책이 완주군 예산에 편성되고 직접 시행 될 수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올해부터 추진해 청년의 목소리와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국제종자박람회 공식 포스터 확정

10월 26일~28일까지…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서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김제시 백산면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되는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의 공식 포스터가 확정됐다.

이번 국제종자박람회 공식 포스터는 비옥한 토양에 여러 가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싹터 또 다른 연구를 수행하고, 이것으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바이어에게 판매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했다.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는 김제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전시포 운영, 주제관과 산업관 조성, 학술대회 등을 통해 종자기업, 해외바이어, 종자학계, 농민 뿐 아니라 가족단위의 일반시민까지 쉽게 방문하여 종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종자의 가치를 새롭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국제종자박람회 공식 포스터를 시청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읍면동사무소 및 김제역, 터미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에 5월부터 행사가 개최되는 10월까지 부착하여, 시민들의 호응도를 높이고 국제종자박람회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유춘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종자박람회는 2020년 2억불 종자수출의 금자탑을 쌓을 기초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개발하고 육성한 품종을 전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우리시가 종자생명산업의 메카임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 운영

완주군이 군민 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이동상담실은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22일 군에 따르면 이동상담실 현장 방문팀 4명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달 지역내 산업단지 및 중소 기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기업규제 완화 실마리를 풀어 나갈 계획이다.

23일에는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체 2곳을 방문해 중소기업 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단지 규제와 기업투자 규제 신산업 · 신성장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군은 현장방문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규제개선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 8개팀 10명이 기업규제개혁 동아리를 구성 운영해 중앙과제 및 지방규제를 발굴하고 기업 규제개혁 법률자문단을 가동시켜 이동상담실 운영 효과를 올릴 계획이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클린김제 청렴문화 협의회 실무자 간담회

김제시는 2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김제시민의 확고하고 수준 높은 청렴문화 정착과 지역 청렴 분위기 확산을 목표로 '클린김제 청렴문화 협의회'(이하, 청렴협의회) 구성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제시청, 김제경찰서, 김제시 교육지원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제시협의회,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김제지역자활센터,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 김제시체육회 등 3개의 공공기관과 1개의 헌법기관, 4개의 사회단체가 참여해 청렴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과 실천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의 임시위원장을 맡은 박민우 김제시 기획감사실장은 "청렴정책에 있어 시민단체와 공조를 통해 상호 청렴시책을 공유하여, 민 · 관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청렴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김제시는 협력강화를 위한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렴문화 실천 캠페인 및 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 시민의 청렴 이슈에 대한 관심 유발과 자발적 참여로 공공부문은 물론 지역사회 윤리의식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